



개태사의 해인

서대천 나들목에서 논산 쪽으로 1번 국도를 타고 18Km 정도 가면 왼쪽 평지에 개태사(開泰寺)라는 조그만 절이 있다. 이 개태사는 계룡산 신도안 입구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천호리에 속한다. 해발 386미터이지만 병풍처럼 쭉 펼쳐진 천호산 기슭 아래 자리를 잡은 개태사는, 무려 천여 년 전에 창건된 사찰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절이었다고 전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태조 19년(936)에 후백제의 신검(神劍)을 무찌르고 후삼국을 통일한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령부가 있던 이곳에 전승을 기려 원래 이름이었던 황산을 천호산(天護山)으로 고치고 4년간에 걸쳐 개태사(開泰寺)라는 절을 창건하였다. 개태사는 '천운(天運)이 크게 열리는 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개태사는 고려가 건국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개국(開國) 사찰이었으며, 그에 걸맞게 고려 태조의 영정을 모시던 진전(眞殿)이 있었고, 국가에 변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신탁(神符)을 받는 등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유지된 절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한 개태사는 결국 왜구의 잦은 침입에 따라 방화와 약탈을 당한 후 조선시대에는 퇴락하여 계속 폐사된 상태로 방치되고 말았다.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1930년에 이르러서야 김광영(金光榮, 1883 - 1969) 보살이 폐사된 절터에 절을 새로 짓고 도광사(道光寺)로 이름을 고쳤다가 다시 태광사(泰光寺)를 거쳐 개태사라는 제 이름으로 불렸다. 불에 타서 없어졌던 개태사를 김광영 보살이 천왕(天王)의 계시에 따라 석조(石造) 불상 2구를 발굴하여 재건한 것이다. 개태사는 김광영 보살이 발굴한 아버지 부처, 어머니 부처, 아들 부처를 모시고 있는 사찰이며, 전국의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단군성조(檀君聖祖)까지 모시고 있는 독특한 절이다.



김광영 보살

그런데 개태사를 중창한 김광영 보살은 1936년에 "해인(海印)의 조화로 일본이 망하고 한국이 해방된다."라고 주장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김용무 판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던 인물로도 전한다. 그 후 김용무 판사는 조선 독립을 위해 기도한 김 보살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판사직을 사임했다고 한다.

원래 김광영 보살은 충남 논산군 천호산 천호봉 아래의 천호리에 살던 8남매를 둔 유복한 가정의 주부였다. 어느 날 김 보살은 천왕의 계시에 따라 입산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 후 10여 년 동

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다가 재판을 받았다. 김광영 보살에 관한 이야기와 판결문은 전 충남도청 자료실장으로 근무했던 1992년 당시 82세였던 김영한씨의 구술과 자료 제공에 따른다.

이 판결문은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에서 판결한 예심인데,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권을 면소(免訴)한다, 사실 본권의 공소 사실은

제 1, 피고인 김병소(金炳洙)는 대정(大正) 9년(1920) 무렵에 당시 경성부(京城府) 천연동(天然洞)에 소재하는 석가(釋迦), 공자(孔子), 노자(老子) 삼성(三聖)을 제사하는 도관묘(道觀廟)를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고(故) 유학수(劉學洙)와 알게 되었다. 같은 해 음력 11월 무렵 같은 장소에서 동인(同人)과 해인(海印, 증거 제3호)을 양수(讓受)받았다. 그때 김병소는 동인(同人)으로부터 "이 해인(海印)은 옛날 지나(支那, 중국)의 황원도사(黃元道師)가 중국에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과 함께 경상남도(慶尚南道) 합천군(陝川郡) 해인사(海印寺)에 가지고 온 것으로, 그 후 정만인(鄭萬人)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훔쳐서 소재를 흐리게 했다. 후일에 이(李) 대왕(大王)이 대원군(大院君)의 명(命)에 의해서 해인을 색출했는데, 이 해인(海印)은 영묘(靈妙)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조화력(造化力)이 있어서 사해(四海)를 통지할 수 있는 자가 소지하게 된다고 한다. 해인의 주인은 이미 정해졌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주인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조선의 통치(統治)까지도 가능하다. 해인(海印)에다 기도하면 그 영력(靈力)에 의하여 해인의 주인이 나타난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 실현(實現)을 기도(企圖)한 범의(犯意)를 계속해서, 첫째, 소화(昭和) 7년(1932) 가을 전라북도(全羅北道) 완주군(完州郡) 운주면(雲洲面) 완창리(完昌里) 강태우(姜太禹)의 방에서 강태우의 둘째 아들 강영식(姜永植)의 처(妻) 황월부인(黃月夫人)이라고 하는 이성녀(李姓女) 등에 대하여, 자기는 합천 해인사(海印寺)에서 해인(海印)을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 유래와 영력(靈力)에 관해서는 전기(前記)와 같이 설명하고, 이것에다 기도(祈禱)하면 그 주인이 나타나 조선왕(朝鮮王)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매월 음력 3일 해인(海印)에 밥과 과일과 물 등을 차려놓고 기도를 함으로써 후천(後天)의 운명을 개척한다고 들었다.

둘째, 그 무렵부터 소화(昭和) 9년(1934) 5월 3일까지 매월 음력 3일 오후 9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전기(前記) 강태우의 방에서 동인(同人) 등과 같이 해인을 향하여 속히 해인의 주인이 나



개태사 석조삼존불



개태사 전경

타나서 조선(朝鮮)을 통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의 주문(呪文)을 창(唱)하고 조선의 독립 달성을 기도했다.

셋째, 소화(昭和) 9년 4월 말일 무렵에 전라북도(全羅北道) 완주군(完州郡) 운주면(雲洲面) 완창리(完昌里) 당시 피고인 김병소의 자택에서 동 피고인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유촌광영(兪村光榮, 창제개명한 이름으로 본래는 김광영(金光榮))에 대하여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해인의 유래와 영력(靈力)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것에 대하여 속히 조선의 독립 달성을 기원하는 뜻을 고했고.

넷째, 소화 9년 음력 5월 초 무렵 전기(前記) 해인을 운주면 완창리에서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천호리 183번지 피고인 김광영의 방에 가지고 와서, 동월(同月) 5일 오후 9시경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김광영의 방 부근에 있는 동본원사(東本願寺) 연산 포교출장소 사무소 내에서 김광영 등이 함께 해인을 향하여 앞서와 같이 주문을 창(唱)하고 빨리 조선 독립이 달성되도록 기도했다.

다섯째, 그 후 어느 날 해인을 전기(前記) 운주면 완창리로 가지고 갔고, 다시 소화 11년(1936) 음력 1월 중순 무렵에 피고인 김광영의 집에 옮겼고, 이후 소화 15년(1940) 음력 7월경까지 김광영을 방문하였다.

매양 전후 십수 회에 걸쳐서 동인(同人)의 방에서 동인(同人)과 동인(同人)의 가족 또는 기타에 대해서 앞서와 같은 모양으로 해인의 영력에 관해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속히 조선의 독립 달성을 기도하도록 그 뜻을 말하였다.

여섯째, 소화 11년(1936) 3월 3일 밤 김광영의 방에서 피고인 정용근(鄭龍根)에 대하여 전기(前記) 해인에 대하여 유래와 영



판결문 5-6쪽

력을 설명하고 여기에 술, 밥, 과일 등을 차려놓고 기도하면 그 주인이 나타나서 조선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일곱째, 소화 11년 3월 3일과 소화 13년(1938) 3월 3일 양일은 김광영의 방에서, 소화 15년(1940) 7월 3일은 논산면 연산면 천호리 개태사 터의 석불당(石佛堂) 안에서, 각각 오후 9시경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해인 김광영 등이 함께 해인을 향하여 빨리 해인의 주인이 나타나서 조선을 통치해 달라는 뜻의 주문을 외고 조선의 독립 달성을 기도했다.

이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했다.

제2, 피고인 김광영은 소화 6년(1931) 초 무렵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내인 충청도 논산군 논산면 천호리 개태사 터에 있는 석불(石佛) 삼체(三體)를 신앙함과 함께, 그 안에 종전과 같이 넘어져 있는 석불(石佛) 이체(二體)를 일으키도록 염원하게 되었다. ... \* 김탁박사/ 신종교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21회》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山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이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갑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 미륵여래(彌勒如來)께서 감로(甘露)의 비를 내리시어 일체 중생의 미혹(迷惑)과 번뇌(煩惱)의 불꽃을 다 멸하신다...

(열반경 권 23 (涅槃經 卷二十三))
是乳藥者 亦名毒害 亦名甘露
시유약자 역명독해 역명감로
이 젖약이라는 것은 또한 이름하여 (마구니를 죽이는) 독약이 되고 또한 이름하여 감로가 된다.

若是犍牛 不食糟滑草麥麩
약시자우 불식주조활초맥익
반드시 이 암소는 술찌꺼기나 잡초나 보릿겨를 먹지 아니하고

其糞造善
기독조선
그소는 고르게 잘 먹으며

放牧之處 不在高原 亦不下濕
방목지처 부재고원 역불하습
기르는 곳이 높은 고원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하습지에 있지 아니한다.

飲以清流 不令馳走 不與特牛 同共一群
음이청류 불령치주 불여특우 동공일군
맑은 물만을 마시며 뛰거나 달리지도 않으며 특이한 소로 무리에 끼어 같이 하지도 않는다

飲饒調適行住得所 如是乳者 能除諸病
음위조적행주득소 여시유자 능력제병
마시고 먹기를 고르게 하며 알맞게 행하고 머물러서 얻는 바라. 이같은 젖이 라이 능히 모든 병을 제한다.

이 말은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술찌꺼기나 잡초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잡된 생각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너무 높은 곳에 있지도 않고 낮은 습지에 있지도 않는다는 것은 중용(中庸)을 가리킨다. 언제나 맑은 마

음만을 갖고, 무리에 섞여서 물들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서 일체의 중생의 병을 낫게 하는 젖, 즉 감로가 나오는 것이다.

是則名爲甘露妙藥
시즉명위감로묘약
이른즉 이름하여 감로 묘약이 된다.

是則乳己 其餘一切 皆名毒害
제시유기 기여일체 개명독해
이 젖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일체가 다 이름하여 해로운 독약이다.

大王聞是語已 讚言大醫善哉善哉
대왕문시어기 찬언대의선재선재
대왕이 이 말을 듣고 칭찬하여 말하되 진정한 의사(醫師)여 선하고 선하다.

我今始知乳藥善惡 即便服之 病得除愈
아금시지유약선악 즉면복지병득제유
내가 이제 비로소 젖약의 선악을 알았으니 곧 약을 먹고 병든 자가 나오리라.

一切病者 皆腹乳藥病悉除愈
일체병자개복유약병悉除愈
일체 병든 자가 다 젖약을 먹고 병이 나오리라.

汝等比丘 當知如來 應正遍知
여등비구 당지 여래 응정편지
너희들 비구야, 마땅히 알라. 여래는 응당히 바로 두루 다 아신다.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명행족 선서 세문해 무상사
밝은 행함이 구축하여 선하게 행하시며 세상을 잘 아시는 위없는 선비이시다.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자신을 잘 제어하는 대장부이시며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니 세상의 제일 웃어른이시다.

亦復如是 爲大醫王 出現於世 降伏一切外道邪弊
역부여시 위대 의왕출현여세 항복일체외도사의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대의왕이 되어 세상에 나와 일체의 외도와 사된 의사들의 항복을 받는다.

我爲醫王 欲伏外道
아위의왕 욕복외도
나도 의사로서 왕이 되어 외도를 항복 받고자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을 받들

어 부르는 이름이 감로를 내리시는 분으로부터 모두 다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역경원에서 나온 한글대장경 해석본 열반경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것이 있다.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인지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혀 해석을 하지 않았거나 영터리로 해석한 것이다. 한번 살펴보자.

석가제존께서 열반에 드실 때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석가께서는 성불하기 위해서는 감로(甘露)의 정도(正道)가 나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다. 하지만 석가가 열반에 들 때까지 부처의 경지에 오른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 석가께서 열반에 든다고 하니 제자들은 아연하여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열반경 권 2 (涅槃經 卷二))
唯願如來 示導我等甘露正道 久住於世 勿入涅槃
유원여래 시도어등 감로정도 구주어세 물입열반
오직 원컨대 여래시여! 우리들에게 감로의 정도를 보여서 지도해 주십시오. 나도 의사로서 왕이 되어 외도를 항복 받고자 한다.

(계속)\*

석가(釋迦)께서 이 같은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말씀하시길

汝諸比丘 今當眞實勸教汝等
여제비구 금당진실교칙여등
모든 비구들아, 이제 참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열반에 들기 전까지 48년간의 가르침은 여래의 비밀한 뜻을 숨겨 놓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고, 이제 비로소 여래의 비밀을 털어놓겠다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라.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다. 누구든지 죽을 때에는 감추어 둔 진실을 밝히는 법이다.

出生妙善甘露 爲衆生煩惱病之良藥
출생묘선감로 위중생번뇌병지양약
묘한 감로가 나와야 중생들의 업장을 멸해서 성불하는 약이 되느니라

我今當令一體衆生 悉皆安住祕藏中
我亦安住是生 入於涅槃
아금 당일체중생 실개안주비밀장중
아역안주시중 입어열반
내가 마땅히 이제 일체중생을 다 비밀장 가운데 편안히 살게 하며 나도 또한 이 가운데 안주해서 열반에 들어갈 것이다.